

NEWS 방송계 동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팟캐스트 누적 다운로드 수 10억 건 달성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3개월 만에 팟캐스트 누적 다운로드 수 10억 건을 달성하였다. 시사 프로그램으로는 초유의 기록으로 일일 평균 다운로드 수는 300만여 건에 육박한다.

<배철수 전영미의 9595 쇼>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tbs FM <배철수 전영미의 9595 쇼>가 제44회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연예오락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BBS

BBS 불교방송, 'Jump BBS' 행복콘서트 개최



BBS 불교방송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기원과 함께 글로벌 미디어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행복콘서트 'Jump BBS'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2월 11일 월요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및 만공회 출범 2주년 기념 행복콘서트 Jump BBS'는 BBS 불교방송의 진행자들과 시청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MBC 충북

MBC 충북, 창사특집 UHD 항공다큐멘터리 방송



MBC 충북이 창사특집 UHD 항공다큐멘터리 '남한강, 하늘에서 만난 이야기'를 제작하여 지난 17일 방송했다. 남한강의 역사와 문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남한

강의 새로운 모습을 담아냈으며, UHD 화질과 항공촬영 위주의 생생한 영상을 전달했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8K UHD 실험방송 추진



KT스카이라이프의 8K UHD 실험방송은 평창 동계올림픽 시점인 2월 천리안 위성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한·일 8K 위성방송 기술협력 워크숍'을 열고 ETRI, SMIT 등 국내외 연구기관·학계·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최근 KTsat 금산위성센터에서 무궁화 7호 위성 송출시스템 구축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한 KT스카이라이프 기술본부장은 "스카이라이프는 광대역 전송기술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화질로 고화질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며, "8K 방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UHD 플랫폼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라디오, 연말특집콘서트 개최



아리랑라디오가 12월 9일 제주도 돌문화공원내 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에서 연말 특집 콘서트 'Arirang Radio End of the Year Concert'를 개최하였다.

방송인 리아가 진행하는 이번 콘서트에는 음악차트 역주행의 아이콘, 명량 어쿠스틱 듀오 신현희와 김루트, 감각적인 힙합 밴드 자코비플래닛, 감성적인

보이스의 인디 싱어송라이터 오웬, 걸크러쉬의 아이콘 카리스마 래퍼 치타, 마음으로 노래하는 가수 백지영이 출연하였다.

방송기술교육원

‘글로벌 방송기술 전문교육 세미나’ 개최



방송기술교육원이 지난 12월 13일 ‘글로벌 방송기술 전문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뉴미디어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IBC 2017 방문과 ‘글로벌 방송제작기술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12월 초 일본 소니 본사와 TV아사히, 후지 TV, 니혼TV 견학한 교육생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다. IBC에서는 OTT와 UHD HDR의 전시가 돋보였다고 소개되었고, 일본 견학에서는 일본 민영방송사의 다양한 홍보 전략과 특유의 제작기술 현황이 공유되었다. 방송기술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끝으로 2017년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며, 내년 4월부터 2018년 교육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EBS

‘충남 EBS 캠퍼스(가칭)’ 충청남도 홍성에 설립



EBS와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12월 13일, ‘충남 EBS 캠퍼스(가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맞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융합인재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EBS 콘텐츠가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충남 EBS 캠퍼스’를 설립해 지역밀착형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BS 디지털통합 신사옥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12월 15일 일산 EBS 디지털통합 신사옥을 방문하여 교육방송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EBS의 숙원사업이었던 교육방송 인프라 구축과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 미래인재 양성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SBS

SBS 방송기술인협회, ‘2017 송년의 밤 및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SBS 방송기술인협회는 ‘2017 송년의 밤 및 협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정주희 기상캐스터의 사회로 시작한 송년회는 CTO 송년사, 퇴직자 감사패 전달 및 기술인협회장 이취임의 식순으로 진행하였다. 송년회는 각 파트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한 협회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CBS

CBS 창사 63주년 기념식 개최



CBS는 12월 15일 목동 사옥에서 창사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번에는 창사 63주년인 동시에 뉴스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뉴스

와 보도 기능을 상실했으나 6월 항쟁의 결과물로서 그 기능을 되찾은 지 30년째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방송사인 CBS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온 그간의 발자취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월트디즈니, 21세기 폭스 인수



월트디즈니가 21세기 폭스의 영화, TV 사업 부문 등 핵심사업을 524억 달러(약 57조 원)에 인수

하고 부채 137억 달러(약 15조)까지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ABC 방송, 스포츠채널 ESPN 등을 거느린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이번 합병으로 21세기 폭스 영화사, 20세기폭스 텔레비전, FX프로덕션, 폭스21 등 폭스 뉴스를 제외한 대부분을 인수하게 되며, 기존에 소유한 픽사, 마블, 루카스 필름에 더해 아바타와 엑스맨, 혹성탈출, 데드폴 등의 콘텐츠 판권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YTN

YTN 노조, 신임 사장 사퇴 촉구

지난 11월 5일, YTN 이사회가 최남수 전 머니투데이방송(MTN) 대표이사를 YTN의 신임 사장으로 내정한 이후, 수많은 대화와 협상·공방이 있었다.

YTN 노동조합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최남수 사장 내정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자주 앉았지만, 최남수 내정자가 YTN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는 것만 재확인했다.

12월 11일, 'YTN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남수 내정자와 적폐 세력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고,

12월 12일, YTN 노조는 2017년 임금 교섭 및 YTN 정상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20일·21일 양일간 실시한다는 결정을 공고했고,

12월 18일, '최남수와 적폐 퇴진을 위한 총력 투쟁 선포식'이 거행되었고, 박진수 YTN 노조위원장장은 단식에 돌입한다.

그사이 YTN 노동조합에서 시행한 최남수 사장 내정자 사퇴 촉구 서명에 이름을 올린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386명 가운데 326명으로 84.4%를 기록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사내 게시판에는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YTN 이사회가 12월 22일에서 28일로 연기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남수 내정자를 새 대표이사로 의결하는 순간, 2008년의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제2회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 개최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지난 12월 15일, '제2회 지상파 UHD 방송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2회 인증위원회에서는 콘텐츠 보호 기능상의 오류 또는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로 인한 콘텐츠

유출 등 지상파 UHD 방송의 콘텐츠 보호 관련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심의 및 의결했다.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는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과 불법 복제에 의한 콘텐츠 시장의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소한 이후,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UHD TV, 셋톱박스 등 수신단말기 및 방송사가 UHD 방송을 제작·송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니터링 장비 등의 콘텐츠보호 기능 적용에 대한 인증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는 콘텐츠 보호 기능의 확대, 문제점 해결 방안 및 인증센터 운영 관련 중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 기구로서 지난 2017년 8월 발족하였다.

OBS

OBS 박성희 신임 대표이사 취임



터틀 소망하는 OBS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성희 신임 대표는 MBC 광고국장과 경영본부장을 거쳤고 이후 백석대 교수, 오투기 감사, MBC 꿈나무축구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박성희 OBS 새 대표가 12월 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박성희 대표는 취임사에서 좀 더 방송다운 방송을 바라는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하며, 아울러 더 나은 방송 일

OBS 해직자들이 돌아왔다



OBS는 12월 15일 자로 13명의 해직자들이 모두 현업으로 돌아왔다. 지난 4월 회사가 13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이에 노조가 대응하여 7월 경기지방법노동위원회는 OBS의 해고가 부당하

다는 판정을 내렸다. 회사는 13명을 복직시켰지만 자택 대기 및 교육발령을 내려 완전한 복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연말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사태가 수습되었으며, 12월 박성희 대표이사가 선임된 후 13명의 완전한 현업 복귀가 이루어졌다.

KBS

KBS UHD 다큐 '순례', '코리아 UHD 어워드 2017'에서 대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17 차세대 미디어대전' 개막식에서 열린 '코리아 UHD 어워드 공모전'에서 2017 KBS 대기 획 UHD 다큐멘터리 '순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한국방송비평학회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7 한국방송비평상 시상식'에서도 KBS '순례'를 다큐 부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KBS '순례'는 길 위에서 찾는 인간의 생존과 구원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약 1년의 기간을 거쳐 제작됐다.

5대 광역도시권 및 강릉, 평창 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 개시



KBS가 지난 12월 21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릉과 평창 지역에서 UHD 실험방송을 개시하며 올림픽 D-50일을 맞아 강릉 과방산 송신소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개·폐회식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 주요 종목이 UHD로 생중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2월 29일부터 5대 광역도시권(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UHD 본방송을 시작했다.

KBS는 UHD 전국권 송출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주요 거점 지역 8개 송신소에 8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신기 설치를 추진해왔고 최근 UHD 송신 준비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의 80% 이상이 UHD 가시청권역에 포함되었다.

지상파 UHD 방송은 인터넷(IP)과 연결되어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지상파 방송사와 정부, 가전사는 합동으로 '지상파 UHD 모바일 시범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를 홍보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UHD 수신이 가능하도록 시·군 단위까지 송신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전시 일정

01

January, 2018
Vol. 265



전시회 명칭 : CES 2018(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가전 전시회)

전시기간 : 2018. 01. 09 ~ 12

전시장소 :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

개체규모 : 전 세계 3,200여 업체, 15만 명 참관



전시회 명칭 : CABSAT(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방송/케이블/통신전)

전시기간 : 2018. 01. 14 ~ 16

전시장소 : Dubai World Trade Centre

개체규모 : 전 세계 900여 업체, 1만 명 참관



전시회 명칭 : 47th NEPCON JAPAN(일본, 동경 전자 총합전)

전시기간 : 2018. 01. 17 ~ 19

전시장소 : Tokyo Big Sight

개체규모 : 2,250여 업체, 11만 명 참관